

50위권 영화 중 절반... “여성 존재감 없었다”

다큐·애니 등 제외한 468편 조사
2016년 여성감독·주연 비중 최고
2018년 남성 위주 작품 가장 많아



▲임실 전지현

전지현의 ‘임실’, 손예진의 ‘비밀은 없다’, 공효진·엄지원의 ‘미씽: 사라진 여자’... 전지현은 여성 주연작 중 역대 최고 흥행작인 2015년 ‘임실’로, 여성감독들이 크게 활약한 2016년 손예진과 공효진·엄지원은 ‘비밀은 없다’(이경미)와 ‘미씽: 사라진 여자’(이연희)로 호평 받았다. 모두 개성 강한 캐릭터 덕분이었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흥행 50위권 영화의 절반이 “이름이 있는 여성 캐릭터가 둘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배경에 가까운 인물이거나, 남성으로만 구성된 동성 집단에 구색 맞추기 정도만 존재”에 머물렀다. 여성 캐릭터가 그만큼 부수적 역할에 그쳤다는 말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화의 성 불균등 및 불평등 실태를 담아 최근 내놓은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 중 캐릭터 성인지 분석 내용이다. 여전히 남성 역할에 기대는 제작환경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스크린 속 여성 활약→장르 다양성

매년 흥행 50위권 영화 중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등을 제외한 468편에서 “한 번이라도 남성 인물에 종속되지 않는 대사와 기억할 만한 역할을 갖고 있는 여성 인물이 존재”하는 작품은 237편

으로 50.6%였다. 그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4년과 2016년이다. 특히 2016년 ‘덕혜옹주’, ‘비밀은 없다’, ‘미씽: 사라진 여자’ 등 여성감독(전체 16.4%·흥행 50위권 13.6%), 혹은 여성 주연(전체 40.7·50위권 36.4%) 영화의 비중은 역대 최고였다.

보고서는 “특정 장르에 편중되지 않고 (스릴러, 드라마, 판타지 등)장르가 다양했다”는 데서 배경을 찾았다. 남성이 주요 인물인 범죄, 스릴러 등 장르가 압도한 2017년과 2018년 상황과도 연관된다. “여성 서사가 남성에게 종속되는 비율”이 2018년 28.9%로 최고치였고, 2010년 27.1%와 2017년 26.7%였다. 실제로 이때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브이아이피’, ‘범죄도시’, ‘독전’ 등 범죄액션 물이 쏟아졌고, 여성감독과 여성 주연이 크게 활약하지 못했다. 그만큼 장르와 여성감독·여성 캐릭터의 활약상이 맞물려 서로 영역을 넓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카메라 앞과 뒤

“제1 주연”이 여성인 영화도 2016년 39.4%로 최고치, 2017년 13.3%로 각각 최고·최저치였다. 또 2017년과 2018년 여성 주연작의 평균 관객수는 2016년 37만여명에서 각각 16만7000여명, 29만여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여성감독과 여성 주연작이 많을수록 흥행작도 나온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 마디로 “제작 현장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는 감독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면 여성 주연작 비율도 상승”하고, 이는 “재현의 영역인 카메라 앞과 인력 구성의 영역인 카메라 뒤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 보고서는 여성 캐릭터 나이대 20·30대(71.9%)와 남성 30·40대(74.8%)의 ‘남고여저’ 현상 등을 통해 “여성 캐릭터가 성숙함이나 원숙함을 덜 가질 수 있고, 여성 캐릭터의 젊음이 남성인물과 비교해 더 중요한 서사적, 시각적 가치를 갖는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채널A-BBC스튜디오, 콘텐츠 협업 맞춘다

채널A와 영국 방송업자 BBC스튜디오가 콘텐츠 협업과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채널A는 13일 “이번 협약으로 디지털 콘텐츠 유통과 글로벌 프로그램 공동기획·제작을 중심으로 상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4분기부터 BBC스튜디오의 콘텐츠가 채널A를 통해 방송된다. 이어 채널A 측은 “2020년 창간 100주년을 맞은 동아미디어그룹과 2021년 개국 10주년을 맞이할 채널A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GV, 엔니오 모리코네 추모 특별 기획전

영화음악의 거장 고 엔니오 모리코네를 추모하는 특별 기획전이 열린다. 13일 CGV에 따르면 16일부터 전국 20개 극장에서 ‘굿바이 마에스트로, 엔니오 모리코네 추모 기획전’을 개최한다. 6일 세상을 떠난 고인은 192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나 500여편의 영화 음악을 작곡했다. 2007년 제79회 아카데미 시상식 평생 공로상, 2008년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시네마 천국’을 비롯해 ‘베스트 오브’, ‘피아니스트의 전설’, ‘미션’, ‘헤이 트롤’ 등 5편을 각각 6000원에 감상할 수 있다.

엔플라잉·SF9, 온택트 공연 ‘눅콘’ 개최

그룹 엔플라잉과 SF9이 새로운 포맷의 온택트 공연인 ‘눅콘(NOOB CON)’을 개최한다. 눅콘은 ‘눅세권 콘서트’의 줄임말로 잠들기 전 ‘나만의 눅세권’에서 즐기는 온라인 심야콘서트로, 매 공연은 한국시간 기준(KST) 밤 10시11분에 시작한다. 엔플라잉은 7월25일, SF9은 8월8일, 눅콘으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난다. 공연 시작 시간은 ‘나른하게 누워 있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lol’에서 착안했다. 나른하게 누운 심야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심야콘서트의 취지에 의미를 더한다.

윤종신, 모친 건강 악화로 프로젝트 중단

가수 윤종신이 모친의 건강 악화로 해외에서 진행 중이던 ‘이방인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고 8개월 만에 일시 귀국했다. 윤종신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머니께서 갑자기 위중해지셔서 급하게 귀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를 시작했다. 모두 건강해야한다”고 글을 썼다. 윤종신은 지난해 11월 ‘이방인 프로젝트’를 위해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해외로 출국했다.

엠넷, 10대 오디션 프로그램 ‘캡틴’ 선포

케이بل채널 엠넷이 10월 10대를 위한, 10대들만의 오디션 ‘캡틴(CAP-TEEN)’을 선보인다. 기존의 ‘고등래퍼’ 시리즈가 10대 힙합 스타 탄생에 초점을 맞췄다면, 케이팝 시장의 세대교체를 꿈꾸는 ‘캡틴’은 노래, 춤, 랩 등 다양한 장르에 소질이 있는 10대를 조명한다. 13일 엠넷 측에 따르면 개인 또는 팀 참가 모두 제한이 없으며, ‘캡틴’ 우승자는 스타 프로듀서가 제작한 음원과 국내 최고 댄스팀의 안무로 데뷔곡을 출시하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 지원자는 다음 달 28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집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오케이 마담’ 엄정화 “코미디+액션에 OK 했죠”

“아침마다 액션스쿨 향하는 내 모습 너무 멋져 촬영 마지막 날 너무 아쉬워 눈물까지 흘렸죠”

배우 엄정화가 5년 만에 코미디 영화로 돌아왔다. 과감한 액션 도전은 덩이다. 최근 예능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 20·30세대 워너비로 등극한 그가 여세를 모아 여름 빅시즌을 겨냥해 8월 중순 영화 ‘오케이 마담’을 내놓는다.

13일 ‘오케이 마담’(제작 영화사 울) 온라인 제작보고회에서 엄정화는 “제목처럼 모든 게 ‘오케이!’ 될 것 같은 통쾌함과 재미를 가진 시나리오에 반했다”며 “행복한 나날이 끝나는 게 아쉬워 촬영 마지막 날 눈물까지 흘렸다”고 돌아왔다.

엄정화의 스크린 복귀는 2015년 ‘미쓰 와이프’ 이후 처음이다. 앞서 2012년 400만 관객을 동원한 ‘댄싱퀸’까지 코미디에서 일거리를 보인 엄정화는 이번 영화에서 극적인 상황에 놓이는 평범한 파배기 맞짓 사장 역을 맡았다. 경품에 당첨돼 난생처음 하와이 여행길에 오른 가족이 비행기에서 느닷없는 테러에 직면해 겪는 이야기다. 코미디와 액션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엄정화를 자극했다.

실제로 엄정화는 “오케이 마담” 출연 계약서에 사인하기도 전 액션스쿨로 출근했다. “액션스쿨에 로망이 있었단” 그는 “아침마다 액션스쿨로 향하는 내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그렇게 두 달 반 동안 훈련에 임하면서 액션의 혹독함을 깨달았지만 반대로 매력에도 푹 빠졌다. 엄정화는 “촬영을 마치고 액션 연기에 매력을 느껴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부호 호흡을 맞춘 박성웅, 연출을 맡은 이철하 감독은 ‘오케이 마담’의 중심은 엄정화임을 명확히 했다. 박성웅은 “엄정화 선배가 출연한다기에 호흡을 맞추고 싶어 참여를 결정했다”며 “엄정화의 코미디는 파란색이나 하늘색 같은 맑고 청명한, 때 묻지 않은 매력이 있다”고 평했다.

이철하 감독은 “코미디 연기는 삶에서 겪은 기쁜 일보다 아픔이 많아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참여한 엄정화 씨와 삶을 나누면서 블록 맞추듯 이야기를 하나씩 맞춰갈 때 작은 감동을 느꼈다”고 밝혔다.

엄정화는 여류 극장에 출사표를 던진 한국영화인 ‘반도’의 강동원, ‘강철비2:정상회담’의 정우성,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황정민·이정재 사이에서 유일한 여성 캐릭터 주인공으로도 승부수를 띄운다. 이날 제작보고회에서 박성웅을 비롯해 이상우, 배정남은 그의 구심점이자 촬영장의 리더로 엄정화를 꼽았다. 그의 친근하고 경쾌한 리더십이 ‘오케이 마담’ 속 캐릭터에 최적화했다는 평가도 오갔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통쾌함과 재미에 반했어요! 배우 엄정화가 13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영화 ‘오케이 마담’ 제작보고회 무대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월드

갑질 논란 신현준, ‘슈돌’ 첫 방송 엇갈린 반응

왜곡 vs 갑질...시청률 11.6% → 9.6% 하락
슈돌 제작진, 사실 확인될 때까지 출연 방침

배우 신현준이 13년간 일한 전 매니저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일상을 공개했지만 시청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신현준과 제작진의 기대가 다소 무색해진 상황이다.

신현준이 두 아들과 아내 등 가족과 함께 12일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첫 등장했다. 이날 12살 연하인 첼리스트 아내와 결혼하기까지 과정과 두 아이를 키우는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내보였다.

하지만 직후부터 13일까지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는 누리꾼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전 매니저의 폭로는 악의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는 신현준의 해명을 근거로 예능프로그램 출연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안에 대한 언급도 없이 제작진이 방송을 강행하며 특정 출연자에게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반응이 엇갈리듯 시청률도 하락했다. 직전 방송분인 6월28일 10.6%(이하 닐슨코리아), 5일 11.6%의 시청률을 각각 기록했지만 신현준이 첫 출연한 12일 9.6%로 떨어졌다. 새로운 출연진이 합류할 때는 시청자 기대효과로 대부분 예능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반등하는 것과 대비된다.



신현준

전 매니저의 ‘갑질’ 주장이 방송 직전 불거진 상황도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현준의 소속사 HJ필름의 전 대표인 김모씨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방송을 사흘 앞둔 9일 “13년간 일하면서 임금과 처우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양측은 계속 대립하고 있다. 신현준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데 이어 10일 KBS 2TV ‘연중라이브’를 통해 “(김씨와)연락이 닿지 않은 지 6년이 됐다”며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여론이 악화했지만,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작진은 일단 이번 사태의 사실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신현준을 계속 출연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론을 의식한 듯 방송 이후 포털 사이트를 통해 3~4분 분량으로 쪼개 공개하는 프로그램 다시보기 클립에서 신현준 가족 분량만 제외했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